

골프전공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 대한 융합적 연구

이경민¹, 범철호^{2*}

¹한국해양대학교 해양체육학과, ²경희대학교 골프산업학과

A convergenc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golf majors

Kyongmin Lee¹, Chul-Ho Bum^{2*}

¹Department of Ocean Physical Education,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²Department of Golf Industry, Kyung He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골프전공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런 목적을 위해 편의표집방법을 이용하여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215명의 골프전공 대학생을 표본으로 추출하였고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전공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골프전공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골프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골프전공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역할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주제어** : 골프전공 대학생,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융합적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golf majors.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given to a convenience sample of 215 students in universities in Seoul and its metropolitan areas. The data were then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o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golf majors. Second, so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areer decision level of golf majors. Thir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areer decision level of golf maj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helpful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on the roles of social support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needed to decide golf majors' career path.

• **Key Words** : Golf majors,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Convergence study

*Corresponding Author : 범철호(unm1186@naver.com)

Received January 4, 2017

Revised January 31, 2017

Accepted March 20, 2017

Published March 28, 2017

1. 서론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시기에 있는 대학생에게 진로를 택하는 것은 인생설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잘못된 진로결정은 직장에서의 불만족뿐만 아니라 학생의 남은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진로결정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1]. 진로결정 과정에는 선택해야 할 여러 대안들이 있고 대안별로 검토해야 할 방대한 양의 정보뿐만 아니라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여러 변수가 있다. 게다가 그 정보가 신뢰할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도 요구된다.

이러한 진로결정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2].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복수의 대안 중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대학생의 진로상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3].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변수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 연구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Kim 등[4]은 인문·사회·이공계 계열 여대생의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재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Na와 Moon[5]은 외식학전공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했다. 또한 Kang와 Kang[3]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으로 밝혀졌다.

한편 스포츠 분야에서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7,8]. 이러한 연구들은 각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학생 운동선수들을 위한 진로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정서적, 평가적, 정보적, 물질적 등의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지원이 스포츠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골프전공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자의 정의는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

해 사회적 지지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9]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롭다고 지각될 때 발생하며[10], 긍정적인 자원에는 사랑, 인정, 존중 등의 정서적 도움,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적 도움, 물질적 도움 등이 포함된다[11]. 개인의 평생 동안 가족, 친구, 교사 등의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사회적 지지 활동에 관여할 수 있다[12].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학자들마다 다른 것처럼 사회적 지지 구성요인에 대한 의견 또한 다양하다. Park[13]은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등 4가지의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Zimet 등[14]은 사회적 지지를 가족 지지, 친구 지지, 의미있는 타자 지지 등 3가지의 변수로 측정하였고 Dubow와 Ullman[15]은 사회적 지지를 가족 지지, 친구 지지, 교사 지지로, Rees와 Hardy[16]는 정서적 지지, 존경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를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부모 지지, 교수 지지, 친구 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문제상황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달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조치를 잘 조직하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혹은 자신감의 수준으로 정의된다[17]. 따라서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에 비해 좀 더 성공적으로 주어진 과제를 마칠 수 있다. 진로분야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Talyor와 Betz[18]에 의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개념화되었으며 직업개발, 직업선택, 직업적응 등과 관련하여 진로준비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 능력의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다[19].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Talyor와 Betz[18]가 제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를 이용하여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진로계획으로 분류하였다.

진로결정수준은 장래의 진로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정도로 정의되며[20] 진로미결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21]. 진로미결정은 개인이 진로결정을 해야 할 때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일컬으며 준비의 부족, 정보의 부족, 모순되는 정보 때문에 발생한다[1]. 본 연구에서는 Osipow 등[22]이 개발한 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를 이용하여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였다.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 간

의 관계에서 먼저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는 일반대학과 전문대 이공계 대학생[23] 및 외식조리전공 학생들[5]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두 변인 간의 정적(+) 관계는 학교 스포츠 분야에서도 발견되었다. 고등학교 태권도 코치의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및 정보적 지지는 학생들의 목표설정 자기효능감, 직업정보 자기효능감, 문제해결 자기효능감, 미래계획 자기효능감과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는 대학 축구선수들의 자기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6].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4]에서 사회적 지지 구성요인 중 자존감 지지와 평가적 지지는 진로결정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빈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25]에서도 가족 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정적(+) 영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비서학 전공 전문대생의 경우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수준 간에는 부적(-) 영향이 발견되었다[26].

한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Yoo[27]는 비서과 전공 전문대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임을 실증적으로 밝혀냈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ang와 Kang[3]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변수 사이에 유의한 관계는 인문·사회·사범, 자연·공학, 예·체능 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발견되었다[28].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사회적 지지는 골프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사회적 지지는 골프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골프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와 2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골프전공 대학생들로 모집단을 선정하였다. 편의표집방법을 이용하여 25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조사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자기평가기입법을 통해 설문지를 회수하여,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35부를 제외한 최종유효표본 215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구체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details of the participants (n = 215)

	Frequency	Percent	
Gender	Male	151	70.2
	Female	64	29.8
Age	Under 21	26	12.1
	21 to 22	69	32.1
	23 to 24	76	35.3
	25 and over	44	20.5
Grade	Freshman	29	13.5
	Sophomore	69	32.1
	Junior	72	33.5
	Senior	45	20.9

2.2 연구도구

사회적 지지의 측정도구는 Nolten[29]이 개발한 설문지를 Lee[30]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설문지는 부모 지지, 교수 지지, 친구 지지 등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은 9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설문지는 44.982%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문지의 신뢰도는 $\alpha=.786-.875$ 의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Factor loadings based on a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with varimax rotation and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for th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Item	Factor1	Factor2	Factor3
Friend support7	.833	-.042	.102
Friend support4	.827	.121	.009
Friend support6	.815	.093	.070
Friend support5	.729	.144	.039

Friend support3	.694	.045	.074
Friend support2	.689	.149	.073
Friend support1	.663	-.106	.117
Friend support8	.438	.164	.272
Friend support9	.420	.210	.320
Parent support5	.130	.706	-.020
Parent support6	.153	.700	.020
Parent support3	-.107	.671	.081
Parent support2	.099	.654	.102
Parent support4	-.064	.653	.139
Parent support7	.138	.635	-.126
Parent support9	.144	.590	.066
Parent support8	.125	.583	-.087
Parent support1	-.070	.517	.043
Professor support7	-.009	-.047	.727
Professor support6	.067	.053	.686
Professor support4	.030	-.070	.629
Professor support9	.326	-.151	.622
Professor support2	.137	.113	.585
Professor support5	-.060	.013	.526
Professor support8	.413	-.116	.514
Professor support3	.071	.118	.506
Professor support1	.153	.122	.500
Eigenvalue	4.798	3.892	3.455
% of Variance	17.771	14.416	12.794
Cumulative %	17.771	32.187	44.982
Cronbach's α	.875	.820	.786

골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Taylor와 Betz[18]가 개발한 CDMSE 측정도구를 Lee와 Lee[31]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설문지는 정보수집 5문항, 목표설정 4문항, 진로계획 4문항, 문제해결 3문항 등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설문지는 55.187%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문지의 신뢰도는 $\alpha=.648-.785$ 의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Factor loadings based on a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with varimax rotation and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for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questionnaire

Item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Goal setting1	.826	.138	.057	.169
Goal setting4	.819	.063	.105	.158
Goa setting3	.715	.116	.138	.161
Goal setting2	.629	.119	.073	.068
Information4	.092	.736	.007	-.039
Information3	.023	.686	-.029	-.052
Information5	.150	.651	-.046	-.147
Information1	.138	.617	.181	.318
Information2	.109	.605	.187	.324

Career plan3	.147	.013	.761	.050
Career plan2	.085	.174	.722	.103
Career plan1	.181	-.023	.703	-.066
Career plan4	-.088	-.015	.609	.352
Problem-solving2	.157	-.064	.169	.760
Problem-solving1	.187	.005	.102	.697
Problem-solving3	.140	.090	-.025	.667
Eigenvalue	2.472	2.277	2.115	1.966
% of Variance	15.453	14.230	13.217	12.288
Cumulative %	15.453	29.683	42.900	55.187
Cronbach's α	.785	.703	.689	.648

골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은 Osipow 등 [22]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Koh[32]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결정수준 설문지는 총 18개의 문항,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1-2문항은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과 3-18문항은 진로결정에 대한 미확신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3-18문항을 역채점(reverse-coding)을 실시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7점부터 72점까지의 분포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 자료에 대한 분석은 수집된 215부의 유효설문지를 갖고 SPSS 19.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골프전공 대학생들의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기술적 통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든 통계적 유의도 검증은 $\alpha=.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3. 결과

3.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Table 4>는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요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지지 요인인 부모의 지지, 교수의 지지, 친구의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인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과 진로결정수준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results

	M	SD	1	2	3	4	5	6	7	8
Parent support	2.94	.78	1							
Professor support	3.02	.75	.071	1						
Friend support	2.97	.82	.211**	.326***	1					
Information	3.05	.72	.142*	.322**	.294**	1				
Goal setting	2.93	.94	.307**	.433**	.394**	.306**	1			
Career plan	2.98	.80	.250**	.245**	.353**	.164*	.263**	1		
Problem-solving	2.94	.89	.343**	.409**	.360**	.151*	.359**	.282**	1	
Career decision	2.94	.78	.170*	.281**	.403**	.132	.371**	.289**	.348**	1

*p<.05, **p<.01

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 목표설정, 진로계획, 문제 해결은 진로결정수준에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인 정보수집은 진로결정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3.2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

부모, 교수,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골프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정보수집 변량에 15%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 변인이 정보수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교수의 지지가 친구의 지지보다 상대적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redicting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from the social support variables

DV	Variable	b	SE	β	t	R ² /F
Info	Parent	.077	.060	.083	1.277	R ² =.150*** /F=12.437
	Professor	.241	.064	.253	3.770***	
	Friend	.170	.060	.194	2.829**	
Goal setting	Parent	.282	.071	.234	3.997***	R ² =.311*** /F=31.750
	Professor	.421	.075	.340	5.622***	
	Friend	.267	.070	.234	3.791***	
Career plan	Parent	.189	.066	.183	2.861**	R ² =.175*** /F=14.967
	Professor	.153	.070	.144	2.181*	
	Friend	.262	.066	.268	3.965***	
Problem solving	Parent	.318	.067	.278	4.720***	R ² =.299**/ F=29.972
	Professor	.381	.072	.325	5.329***	
	Friend	.212	.067	.196	3.146**	

*p<.05, **p<.01, ***p<.001

사회적 지지는 목표설정 변량에 31%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수의 지지는 부모의 지지나 친구의 지지 보다 상대적으로 목표설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진로계획 변량에 17.5%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친구의 지지, 부모의 지지, 교수의 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문제해결 변량에 29.9%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교수의 지지, 부모의 지지, 친구의 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 교수,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골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는 <Table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변량의 19.5%를 설명해 주고 있다. 사회적 지지 변인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친구의 지지가 교수의 지지 보다 상대적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redicting career decision level from the social support variables

DV	Variable	b	SE	β	t	R ² /F
Career decision	Parent	1.926	1.385	.088	1.391	R ² =.195*** /F=17.052
	Professor	3.766	1.472	.167	2.559*	
	Friend	6.852	1.383	.330	4.955***	

*p<.05, ***p<.001

골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는 <Table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변량의 21.4%를 설명해 주고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목표설정,

문제해결, 진로계획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7>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redicting career decision level from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variables

DV	Variable	b	SE	β	t	R ² /F
Career decision	Info.	-1.110	1.528	-.005	-.072	R ² =.214*** /F=14.299
	Goal setting	4.597	1.252	.253	3.671***	
	Career plan	3.465	1.379	.164	2.513*	
	Problem solving	4.057	1.287	.211	3.153**	

*p<.05, **p<.01,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골프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 교수, 친구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장에서는 주요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부모, 교수, 친구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골프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미 있는 타인의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다고 주장한 연구결과들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5,23,26,33].

골프전공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있어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중 교수의 지지는 부모와 친구의 지지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인 정보수집 효능감, 목표설정 효능감, 문제해결 효능감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친구 지지의 진로계획 효능감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이 다른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와 친구의 지지가 골프전공 대학생들의 직업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부모의 지지 보다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골프학과 교수들은 학생과의 정서적 결속 및 신뢰감 형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학생들에게 진로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설정한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지속적인 피드백과 격려가 요구된다. 또한 골프학과 차원에서 학생들이 졸업 후에 희망하는 직종군

을 파악하고 해당 직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멘토를 지정하여 학생들이 진로를 설계할 때 학생동료 멘토로부터 정보적, 평가적 지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골프전공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수준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한 결과 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수준이 높아진다[3,4,23,34,35,36,37]는 국내외 연구결과들과 유사하다.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흥미로운 점은 친구 지지가 골프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며 부모 지지는 진로결정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진로결정을 함에 있어 동료의 역할이 교수와 부모에 비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학생동료 멘토를 이용함과 동시에 유사한 직업군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그룹화하여 해당 직종을 준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서로 허심 탄해하게 이야기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골프학과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높은 부모지지 및 가족지지는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25,38]와 후기 청소년기인 대학생 시기에 부모 지지는 진로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39,40]를 기초해 볼 때 부모 지지와 골프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골프전공 대학생의 목표설정 효능감, 진로계획 효능감, 문제해결 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본인의 진로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한다고 보고한 기존의 선행연구[3,5,27]와 일치한다.

따라서 진로상담을 통해 학생 본인에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정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한편, 학생이 선택한 직업이 본인에게 잘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인턴십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목표설정 효능감을 높여 궁극적으로 학생의 진로결정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인턴십 기회는 해당 직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

술에 대해 습득하고 본인이 수행한 일에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로계획 효능감과 문제해결 효능감을 배양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골프전공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골프학과 학생들의 진로를 지도함에 있어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역할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이를 위해 골프전공 대학생 2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전공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골프전공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골프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골프전공 학생들이 설정한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골프전공 학과는 교수 및 동료 학생들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사회인지진로이론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스포츠 분야에 적용하여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골프전공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연구방법상의 문제점과 연구의 제한으로 인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조사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골프전공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 골프학과 학생을 연구 표본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부모 지지는 청소년[25,38]과 대학생[39,40]의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들은

다른 체육계열 전공자를 대상으로 두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REFERENCES

- [1] I. Gati, M. Krausz, & S. H. Osipow,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3, No. 4, pp. 510-526, 1996.
- [2] T. Morgan, & D. Ness,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of first-year students." *The Canadian Association of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 Services*, Vol. 2, pp. 33-39, 2003.
- [3] M. Kang, & M. Kang, "A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 27, No. 4, pp. 489-510, 2015.
- [4] J. S. Kim, L. N. Seo, & J. M. Tak, "The impa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 level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9, No. 4, pp. 5-14, 2006.
- [5] T. K. Na, & S. W. Moon,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of professo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foodservice and culinary at majors: Focus on the university in Chungcheong province." *Culinary Society of Korea*, Vol. 18, No. 2, pp. 106-117, 2012.
- [6] H. H. Ko, "The effect of the soccer players social support and self-virtue to the decision of their destiny." Ph.D. dissertation. Kwandong University, 2011.
- [7] S. M. Shin, "The effect of parents and instructor support on university judo players'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preparatory." Ph.D. dissertation. Yong-in University, 2014.
- [8] J. H. Shim,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career

-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and students." Ph.D.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2016.
- [9] S. Cohen, & H. M. Hoberman,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nd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13, No. 2, pp. 99-125, 1983.
- [10] D. L. Vietze, "Social support." In B. B. Bradford, & M. J. Prinstein(Eds), *Encyclopedia of adolescence*, New York, NY: Academic Press, pp. 34-52. 2011.
- [11] A. Pines, E. Aronson, & D. Kafry, "Burnout: From tedium to personal growth." The Free Press, New York, 1981.
- [12] S. Cobb,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Vol. 38, No. 5, pp. 300-314, 1976.
- [13] J. W. Park,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1985.
- [14] G. D. Zimet, N. W. Dahlem, S. G. Zimet, & G. K. Farley,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52, No. 1, pp 30-41, 1988.
- [15] E. F. Dubow, & D. G. Ullman,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18, No. 1, pp. 52-64, 1989.
- [16] T. Rees, & L. Hardy, "Matching social support with stressors: Effects on factors underlying performance in tenni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Vol, 5, pp. 319-337, 2004.
- [17]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4, No. 2, pp. 191-215, 1977.
- [18] K. M. Taylort, & N. E. Betz, "Application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22, pp. 63-81, 1983.
- [19] S. L. Anderson, & N. E. Betz, "Sources of social self-efficacy expectations: Their measurement and relation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58, No. 1, pp. 198-217, 2001.
- [20] S. D. Raaf, M. Dowiel, & C. Vincent, "Improving career decision making of young workers: Design of a randomized experiment." *Social Research and Demonstration Corporation*, pp. 1-20, 2009.
- [21] L. A. Prideaux, & P. A. Creed,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ndecision: A review of the accrued evidence." *The Australia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 10, No. 2, pp. 1-21, 2001.
- [22] S. H. Osipow, C. G. Carney, J. Y. Winer, & M. Koschier, *Career decision scale.* Odessa. E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87.
- [23] J. O. Shin, "Inter-relationships among career barriers, social supports,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decis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19, No. 2, pp. 109-141, 2011.
- [24] B. S. Min,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in high school Taekwondo players."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Vol. 15, No. 1, pp. 33-42. 2013.
- [25] T. Y. Um, K. Y. Kim, & B. N. Han,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 level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Focused on adolescents from low income familie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17, No. 2, pp. 69-85, 2009.
- [26] H. Hwang, & J. Paek, "Effects of self-identity and social support on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Vol. 24, No. 1, pp. 99-122, 2015.
- [27] J. S. Yoo,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ndecision and attachmen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students of secretarial department in junior college." *Korean Association of Secretarial Studies*, Vol. 14, No. 1, pp 193-217, 2005.

[28] S. J. Jang,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Sanmyoung University, pp. 91-114, 2000.

[29] P. W. Nolten,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1994.

[30] M. R. Lee, "A study on the social support system to influence on the high school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Master's thesis. Kyungbuk University, 2000.

[31] K. H. Lee, & H. J. Lee, "The effects of career self 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Psychology, Vol. 12, No. 1, pp. 127-136, 2000.

[32] H. J. Koh,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counse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s and on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Ph.D,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2.

[33] S. Moon, & M. Bak, "Exploring the structural model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social support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self-perceived employability." The society of Korean Agricultural Education, Vol. 45, No. 4, pp. 79-104, 2013.

[34] G. J. Kim, K. H. Kim, & K. S. Park, "The structural analysis of relations among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 level and academic self-efficacy affecting academic achievement of provincial college student."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Vol. 17, No. 2, pp. 1-25, 2012.

[35] J. H. Lee, "A study on the causal relationship of the undergraduates' psycho-social characters and career exploration activ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5, No. 3, pp. 257-280, 2001.

[36] D. L. Blustein, "A context-rich perspective of career exploration across the life role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 45, No. 3, pp. 260-274, 1997.

[37] T. U. Ketterson, & D. L., Blustein,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 46, No. 2, pp. 167-178, 1997.

[38] S. R. Kim, & J. C. Lee, "Influence of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n adolescent career maturi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9, No. 2, pp. 393-407, 2007.

[39] D. L. Blustein, M. M. Walbridge, M. L. Fredlander, & D. E. Palladino,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8, pp. 39-50, 1991.

[40] K. M. O'Brien, "The influence of parent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on the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48, pp. 257-274, 1996.

저자소개

이 경 민(Kyongmin Lee)

[정회원]



- 2007년 7월 : Saint Thomas University (스포츠경영학 석사)
- 2014년 12월 : University of New Mexico (체육학박사)
- 2015년 8월 ~ 현재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시간강사

<관심분야> : 스포츠법, 스포츠심리학

범 철 호(Chul-Ho Bum)

[정회원]



- 2007년 12월 : University of New Mexico (체육학석사)
- 2013년 5월 : University of New Mexico (체육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경희대학교 골프산업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스포츠심리학, 골프